

국어 영역

▣ 화법 / 작문

1. 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 ④

기자는 주휴 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하루 3시간씩 5일을 근무했을 경우 하루치에 해당하는 급여가 별도로 산정되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⑤ 해당 뉴스에서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근로 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방송 보도 사전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① 방송 초반부에서 임금 체불 피해자인 이 모 군의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모 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의 횡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 시간, 휴가 일수, 휴게 시간, 임금, 주휴 수당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④ 네 번째 문단에서, 경계해야 할 업체의 특징을 설명하며 업체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3. 반응 분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시청자 2’는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다. 고용주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③ ‘시청자 3’은 주휴 수당의 개념과 그 중요성만 언급하고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방송 보도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청자 4’는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에서 상담 받았던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⑤ ‘시청자 5’는 고용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고쳐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나)에서 ‘학생 1’은 답사 장소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정에 대한 감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㉔의 수정 사항은 오히려 초고보다 감상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답사 장소의 특징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① ㉔의 ‘시(時)와 별이 흐르는 고장’이라는 표현은 천문대와 문학관이 있는 영월의 지역적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학생 1’은 전문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밝혀 주고 동아리에 대해 부연하자는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문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㉔에서 ‘강원도 영월’은 융합 답사가 진행된 장소에 해당한다.

③ ㉔의 ‘영월을 대표하는 강인 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선돌’과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몸을 피했던 ‘고씨 동굴’이란 표현은, ‘선돌’을 소개할 때 ‘동강’에 대해 언급하고 역사적 사실에 맞게 ‘고씨 동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자는 ‘학생 2’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⑤ (가)의 ‘한편 봉래산 정상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에 적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다.’는 기사문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기사문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5.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말 중, ‘학생들에게 문학, 과학, 역사 등의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는 교과 융합 답사를 준비한 배경에, ‘답사 보고서 작성 대회’는 답사 이후 진행될 관련 행사에 대한 내용에 해당한다.

① 교과 융합 답사를 준비한 배경과 답사 이후 진행될 관련 행사에 대한 내용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②, ③ 답사 이후 진행될 관련 행사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교과 융합 답사를 준비한 배경은 언급되지 않았다.

④ 교과 융합 답사를 준비한 배경은 제시되어 있으나 답사 이후 진행될 관련 행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6. 발화의 성격 이해 [정답] ③

‘학생 3’이 ㉔에서 초고의 본문이 답사 장소 위주로만 소개를 해서 내용이 단조롭다고 말하는 것은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㉔에서 기사문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① ‘학생 1’은 ㉔에서 자신이 기사를 처음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으므로, 조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㉔에서 답사에 대한 기사나 전문에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㉔에서 지난번에 협의할 때 본문 마지막에 답사 취지를 소개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㉔에서 초고의 분량도 많은데 추가로 작성할 양 역시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7. 답화의 성격 파악 [정답] ④

[A]에서 ‘학생 2’는 융합 답사를 진행한 동아리와 융합 답사에 참가한 학생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본문과 전문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B]에서 ‘학생 3’은 영월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답사 때 방문했던 장소는 모두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근거로, 답사했던 장소를 모두 소개하지 말고 표제와 관련된 장소들만 자세히 설명하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②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고 있으나,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⑤ [A]에서 ‘학생 1’이 ‘학생 3’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8. 글쓰기 전략 파악 [정답] ③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궁

금해하는 학생을 고려하여, (다)의 네 번째 문단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성질을 설명한 뒤 함께 흡착되어 인체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오염 물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①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을 고려하여,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을 고려하여,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영국과 유럽 연합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발의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9.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발언의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적극적인 환경 캠페인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① (다)의 첫 번째 문단에서, 최근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 천연염 이외에도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음식, 식수 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유입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의 네 번째 문단에서, 플라스틱이 주위의 다양한 물질을 끌어당기고 붙여서 흡착하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다)의 다섯 번째 문단에서, 영국과 유럽 연합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또한 관련 규제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보기〉의 요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③은 이러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 문법

11. 안은문장, 안긴문장의 이해 [정답] ③

㉔의 안긴문장 ‘빛깔도 곱게’는 안은문장의 서술어 ‘피었다’를 수식하지만, ㉔의 안긴문장 ‘색종이로 만든’은 안은문장의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이 ‘쟁반을’을 수식한다.

① ㉔의 ‘곱게’는 안긴문장의 주어 ‘빛깔도’의 서술어이고, ‘피었다’는 안은문장의 주어 ‘도라지꽃이’의 서술어이다.

② ㉔의 ‘쟁반을’은 안긴문장 ‘색종이로 만든’의 생략된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다.

④ ㉔의 ‘빛깔도’는 안긴문장 ‘빛깔도 곱게’의 주어이고, ㉔의 ‘정성이’는 안긴문장 ‘정성이 가득 담긴’의 주어이다.

⑤ ㉔의 ‘선물했다’는 부사어 ‘어머니께’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고, ㉔의 ‘받았다’는 부사어 ‘친구로부터’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12. 어미의 유형 파악

정답 ⑤

‘준비하기가’의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이지만, ‘쉽지’의 ‘-지’는 전성 어미가 아닌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 ① ‘떡어’의 ‘-어’는 연결 어미, ‘보았다’의 ‘-다’는 종결 어미이므로 모두 어말 어미에 속한다.
- ② ‘들었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아니로구나’의 ‘-로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④ ‘듣고’의 ‘-고’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13.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 ②

‘허다’는 어간이 ‘ㄱ, ㅋ, ㆁ, ㆁ’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음성 모음 뒤에 붙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 대신 ‘ㄹ’만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허음’이 아닌 ‘허’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① ‘발다’의 마지막 음절에는 양성 모음이 쓰였으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로 ‘-음’이 쓰여 ‘바툼’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③ ‘쁘다’는 어간이 ‘ㅍ’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ㅍ’가 탈락된 후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쓰여 ‘뽀’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④ ‘쁘다’는 어간이 ‘ㄱ’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 ‘-음’ 대신 ‘ㄹ’만 결합되어 ‘뽀’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⑤ ‘버히다’는 어간이 중성 모음 ‘ㅣ’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ㅣ’와 ‘-음’ 또는 ‘-음’이 축약된 형태로 쓰여 ‘버흠’ 또는 ‘버흠’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14.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 ⑤

‘읽고[일코]’에서는 ‘ㅎ+ㄱ’이 [ㄱ]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으며 ‘곱하다[고파다]’, ‘점잖다[점잔타]’에서도 각각 ‘ㅂ+ㅎ’이 [포]으로, ‘ㅎ+ㄷ’이 [트]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① ㉠과 ‘땀받이[땀바지]’는 구개음화에 해당하지만 ‘뻐히다[발키다]’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 ② ㉡과 ‘옴기다[옴기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지만 ‘닭은꿩[달은꿩]’은 연음이 될 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③ ㉢과 ‘일컸다[일컸따]’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만 ‘꿈같이[꿈가치]’는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④ ㉣과 ‘속눈썹[송눈썹]’은 비음화에 해당하지만 ‘답안지[다반지]’는 연음이 될 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5. 국어사전 정보 완성하기

정답 ④

‘만큼’은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해당 단어를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격 조사이다. 이는 ‘만큼[II]’의 예문에서 ‘만큼’이 붙은 어절이 부사어가 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만큼’이 어미 ‘-은, -는, -을, -던’ 뒤에 쓰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다. 이는 예문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언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히 준비해.’는 철저히 준비하라는 내용의 근거가 검사가 까다롭기 때문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③ ‘조사’는 ‘체언’의 바로 뒤에 붙으므로 ㉡에는 ‘체언’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이는 제시된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⑤ ‘만치’는 ‘만큼’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 그 의미와 기능이 ‘만큼’과 거의 같다.

독서 / 문학

[16~20] (사회)

「공동 소유 관계의 종류와 특징」

이 글은 공동 소유 관계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지분에 따른 공유물 사용 시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공유와 합유, 총유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데 지분은 매우 불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자들 간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16.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③

3문단을 통해 합유 지분의 상속은 합유 관계가 성립할 때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별도로 상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합유 지분의 상속이 가능한 것이지 ③의 진술처럼 다른 합유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합유 지분의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합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지분은 남은 합유자의 수대로 지분이 분할되어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 ① 1문단에서 공동 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 세 명의 소유자도 물론 있을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 합유, 총유와 같은 공동 소유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부동산의 합유 관계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6문단에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 원고가 무리한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할 수 없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분할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가진 원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유물에 대해 공유자들이 균등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공유 재산에 대해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한 사람의 수로 지분이 균등히 나뉘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 핵심 정보의 비교 이해

정답 ⑤

4문단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 개개인은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① 1문단에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동 소유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공유와 총유 모두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공유에서는 공유자들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요구해서 공유 관계를 끝낼 수도 있지만, 총유에서는 사원들이 임의로 사단을 탈퇴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 ③ 공유에서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총유에서는 재산의 소유자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2/3 이상의 동의를 있다면 사단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④ 공유에서는 공유자들 각자가 공유물에 대한 지분

을 가지고 있지만, 총유에서는 사원들이 총유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없다.

18.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③

〈보기〉의 ‘갑·을·병’은 합유 관계에 있으므로, ‘병’이 공동 사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넘기거나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합유 관계에 있는 동안 합유자들은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만약 합유자가 합유물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합유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 ① 합유 관계에서 합유 재산을 합유자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소유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을’과 ‘병’에게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음에도 점포에 대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취득할 수 없다.
- ② 합유자는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자기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병’이 ‘정’에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남은 합유자의 수대로 지분이 분할되어 다른 합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므로, ‘병’이 ‘정’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갑’과 ‘을’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
- ⑤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두 명 이상이 조합이나 동업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갑·을·병’이 사업체를 조직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는 그들이 맺고 있는 공동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19. 사례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철수가 해당 토지의 1/4 면적에 농작물을 심는 것은 토지의 일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철수 이외의 공유자는 철수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5문단에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철수가 해당 토지의 1/4을 초과하는 면적에도 농작물을 심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철수가 해당 토지의 1/4 면적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은 토지의 일정 부분을 항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철수 이외의 공유자는 철수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 면적의 3/4뿐 아니라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⑤ 철수가 소유한 토지는 공유 재산이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려면 철수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의 ‘가지다’는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에서 사용된 ‘가지다’ 또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직업, 자격증 따위를 소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모임을 치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1~26] (현대 소설+시나리오)

(가) 김재영, 「코끼리」
이 작품은 네팔인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3살 어린이 '나'의 시선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의 제목 '코끼리'는 맑고 높은 히말라야에서 신성을 중시하는 전통 사회에 살다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후미진 공장 지대에 와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외모와 국적 등 외적 조건으로 인한 사회의 편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문화 시대 속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나) 이창동·우니 르콩트, 「여행자」
이 작품은 여행을 가자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가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의 심리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주인공 진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육원에 오게 되어 낯설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을 맞는데, 실제 9살에 프랑스를 입양되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9살 소녀가 보육원에 들어와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2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한국에서 피부색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에서는 진희가 보육원에 오게 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계기가 되어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인물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있으나 여기에 초점을 두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는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 ⑤ 과거 사건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를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새롭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②

(가)의 '로션'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드러내는 수단에 해당하지만, (나)의 '옷'과 '신발'은 진희를 보육원에 보내기 전에 아버지가 진희에게 사 준 선물로 이는 진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관련이 있을 뿐, 진희와의 재회를 약속하는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① (가)에서 '나'는 탈색제를 풀어 세수하다가 아버지에게 멍이 들도록 종아리를 맞게 되고, (나)에서 진희는 식사를 거부하며 식판을 바닥으로 밀쳐 보모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 ③ (가)에서는 '네팔', '스리랑카' 등의 구체적인 국명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어느 나라 출신의 노동자들 인지를 나타낸다. (나)의 '보모', '원장' 등의 명칭은 보육원에서 이들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낸다.
- ④ (가)의 '코끼리'는 고향 네팔을 떠나 한국의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노동자로 지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한다. (나)의 '새'는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진희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⑤ (가)의 '공장 지대'는 '나'의 아버지가 처한 생활 환경을 보여 주며, (나)의 '보육원'은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된 진희의 상황을 드러낸다.

23. 소재에 담긴 의미 파악 [정답] ②

'비비충'은 '나'가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 원인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수단이다. '나'는 한국인과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 ① '탈색제'를 발라 얼굴을 하얗게 하여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에서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받고 싶지 않은 '나'의 의중을 알 수 있다.
- ③ 큰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큰 사고를 당하고 흰 붕대에 손을 감고 다니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비참한 노동 현실과 그들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큰이 남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노랑계 염색을 하여 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음을 '나'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토야 엄마의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에는 토야 아빠가 스리랑카로 추방되어 혼자 지내는 토야 엄마의 쓸쓸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2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 ⑤

탈색제를 써서 한국인처럼 얼굴을 하얗게 하려는 자식의 행동을 보고 종아리를 때리며 엄하게 야단친 후 베이비로션을 자식의 겹집이 벗겨진 얼굴에 잔뜩 발라 주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흐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고서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 ①

#26은 보육원이라는 낯선 곳에 온 진희가 그곳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모는 진희가 빨리 보육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희의 행동에 화를 내며 야단치고 있고 숙희 또한 진희가 보육원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들 주변 인물들이 진희를 괴롭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육원 내의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② #27에서는 "아빠가 여행 보내 준다고 했던 말예요."라는 말을 통해 진희가 보육원에서 지내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 ③ #78에서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는', '침을 한 번 삼키고'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기 전 긴장된 진희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79에서는 대사를 하고 있는 원장에게 카메라가 가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진희의 표정에 카메라가 위치함으로써 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올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된 진희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80에서는 비 오는 풍경과 무덤에 묻힌 '새'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를 파헤치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려는 진희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게 된 진희의 심리를 #79에 이어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26.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이해 [정답] ④

#78~#79에서는 진희의 심리를 배우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영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보기>에서 제시된 객관적 세계의 시각적 제시에 뛰어나다는 시나리오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는 소설과 비교할 때 인물의 심리 묘사에 제한이 있지만 배우의 연기에 의해 인물의 심리를 영상으로 재현함으로써 화면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시각적 제시가 가능하다.

[27~32] (과학+기술)

「핵융합과 핵융합 발전」
이 글은 수소 핵융합 반응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 중인 수소 핵융합 발전이 구현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핵융합 반응은 초고온 상태에서 복수의 가벼운 원자핵이 핵반응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것으로, 태양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핵반응하여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헬륨의 원자핵으로 융합되지 않는 자유 핵자에 의해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핵융합 발전이다. 대표적인 핵융합 발전 기술인 자기 가둠 방식은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초고온의 플라스마 안에 원자핵을 가두는 방식으로, 원자핵이 플라스마 밖으로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토카막 방식에서는 I형 전자석의 설치를 통해 플라스마의 뒤틀림을 만들어 원자핵의 누출 문제를 해결하였다.

27. 내용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①

이 글은 1~3문단에서 핵융합 반응을 설명하고 있으며 4~7문단에서는 핵융합 발전의 원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1문단에서는 원자핵의 구성 원리와 핵융합의 개념을 설명하고,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문단에서는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과 반응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며,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핵융합 과정에서 생성된 열에너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이 열에너지에 의해 핵융합 반응이 지속됨을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핵융합 발전 기술의 개념과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며, 5~7문단에서는 핵융합 발전의 원리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토카막 방식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28.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2문단을 보면 중수소를 나타내는 ${}^2\text{H}$ 의 경우 숫자 2는 원자핵의 핵자 수를 합한 값인 질량수를 표시하며 숫자 1은 양성자의 수를 표시한다고 했으므로 중성자의 수는 전체 핵자 수에서 양성자의 수를 빼서 구할 수 있다. 즉 수소의 중성자는 0개, 중수소의 중성자는 1개, 삼중 수소의 중성자는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소는 중성자를 지니지 않으므로 수소와 수소의 동위 원소들은 모두 한 개 이상의 중성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에서 핵융합 반응 후의 질량은 반응 전에 비해 작아진다고 했으므로 핵융합 반응 전 질량이 핵융합 반응 후 질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원자핵은 최소 하나의 양성자를 지닌 몇 개의 핵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 후에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도 한 개 이상의 양성자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원자핵끼리 매우 근접하게 되면 전자기력보다 강한 핵력이 원자핵들 사이에 발생하여 서로를 묶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핵끼리 서로 융합할 때 전자기력에 의한 반발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핵융합 발전은 화력 발전이나 핵분열 반응을 하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단위당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9. 이유의 추론

정답 ④

2문단에서 모든 핵융합 반응에서는 반응 전후의 전체 핵자 수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1문단에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는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양성자만 양전하를 띠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핵융합 반응 후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핵자 수만을 고려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 전후의 전체 핵자 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의 약자 수도 변함이 없고, 전하량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⑤

A는 핵융합 반응 후에 생성된 전체 에너지의 양이 B보다 크다. 2문단에서 결손된 질량이 열에너지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생성된 전체 에너지의 양이 더 큰 A가 B보다 결손된 전체 질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① A와 B에서 핵융합 반응을 한 가벼운 원자핵은 모두 중수소로 동일하지만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은 A는 삼중 수소(^3H)이고, B는 헬륨의 동위 원소(^3He)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A의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열에너지의 총량은 4.03MeV이고, B의 총량은 3.27MeV으로, B보다 A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열에너지의 총량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③ A의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이 가지는 열에너지는 1.01MeV이고, B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이 가지는 열에너지는 0.82MeV으로, B보다 A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이 가지는 열에너지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 ④ B의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자유로운 핵자(n)의 에너지는 2.45MeV이고, A에서 생성된 자유로운 핵자(p)의 에너지는 3.02MeV로, A보다 B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자유로운 핵자의 에너지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31.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④

<보기>의 ㉔는 플라스마, ㉕는 I형 전자석, ㉖는 O형 전자석이다. 6문단을 보면 ㉕의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㉖의 내부에 고리 형태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면, ㉕의 자기력선의 영향으로 ㉖가 자기력선 자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㉖ 역시 ㉕의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7문단을 보면 ㉖(=㉕의 자기력선)와 수평 방향으로 ㉕에 전류가 흐르면 ㉖와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력선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㉕의 전류, ㉕의 새로운 자기력선은 서로 수평 방향이 되고, ㉕의 자기력선(=㉖), ㉕의 전류는 서로 수평 방향이 된다.

- ① 5문단에서 플라스마는 전자와 원자핵, 이온 등이 입자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초고온 상태인 플라스마에서 중수소와 삼중 수소의 원자핵은 초고속으로 충돌하며 융합한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으로 열에너지가 생성되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핵융합 발전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㉖에서도 중수소와 삼중 수소가 융합하면서 생성해 낸 에너지가 다시 핵융합을 일으키며 핵융합 반응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 ③, ⑤ 7문단에서 토카막 방식에서는 ㉕에 전류가 흐르면 새로운 자기력선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자기력선이 ㉖의 뒤를 받쳐 발생하게 하여 ㉖의 안쪽과

바깥쪽의 밀도가 균일해져, ㉖의 내부의 원자핵의 누출을 막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32. 바꿔 쓰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전이되어’는 ‘자리나 위치 따위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의 의미이다. ㉓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다.’의 의미인 ‘전환(轉換)되어’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② ㉔의 ‘분리되어’는 ‘서로 나뉘어 떨어져’의 의미이다.
- ③ ㉕의 ‘극복하고’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내고’의 의미이다.
- ④ ㉖의 ‘해결하기’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기’의 의미이다.
- ⑤ ㉗의 ‘방지하게’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게’의 의미이다.

[33~35] (현대 시)

(가) 정지용, 「비」

정지용 특유의 감각미와 절제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비가 오기 직전부터 그쳤다가 다시 내려서 흐를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간결한 시행 속에서도 정확한 언어 감각으로 압축미를 드러내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감각이 사용되어 시적 화자가 담으려고 한 비 오는 날의 장면이 인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 고재중, 「알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참담한 삶 속에서 생명의 기미를 찾는 시인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이 시는, 풍요롭게 굶이치며 흐르던 강이 갈대잎만 시퍼렇게 남기고 실낱 같은 줄기로 야위어 버린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상실의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시인은 절망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3. 작품 간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에서 물살이 흐르는 모습을 ‘갈갈이 / 손가락 펴고’로 묘사한 대목과, ‘비가 ‘붉은 잎 잎 / 소란히 밟고 간다.’라고 한 표현에서 활유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강이 ‘온 몸을 세차게 뒤튼다는 표현이나 ‘자꾸 야’인다는 표현에서 활유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나)에는 ‘저기’, ‘저기’ 등과 같은 지시어가 쓰였지만, (가)에는 지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 ② 반어적 표현은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가)와 (나)에는 모두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시적 대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물인 ‘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34.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E]에서는 ‘소소소’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갈대잎 우는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답답한 상황의 해소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 ① 비가 오기 전 돌 위에 구름이 드리우고 바람이 부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날씨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여울지어 / 수척한 흰 물살’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모습을 마치 ‘갈갈이 / 손가락’을 편 것

과 같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빗방울이 낙엽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소란히 밟고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튀어오르기도 / 했었지.’, ‘그러니까 / 우리 정녕’과 같이 의미의 분절 단위로 일치하지 않는 행의 배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 간 괴리에 따른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35.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③

(나)의 ‘시퍼렇게 치솟아오르며 무어라 무어라고 마구 소리’치는 갈대잎의 모습은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생명의 교감을 이루던 지난 시절과는 거리가 멀다.

- ① ‘면면한 희망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압당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온 몸을 세차게 뒤뜰던 강’, ‘아침 햇살에 셋노란 승어가 튀어오르’던 모습 등은 화자가 생명력 넘치던 과거를 회상하며 떠올린 이미지이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윤기나는 머리칼 치렁치렁 날리던 날들이 기어오지 않아서 ‘강물에 빨은 쓴 약의 시간들’이 ‘새까만 암죽’이 되어 강줄기를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화자는 안타까워한다.
- ⑤ ‘가슴 짝 막힌 그 무엇을 시원하게 / 쓸어버리며’라는 시구는 ‘큰물이라도 좀 졌으면’ 하는 화자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다. ‘큰물’은 야위어 버린 현재의 ‘강’과 대비되는, 과거 생명력이 넘치던 공간이었던 ‘강’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36~38] (고전 소설)

작자 미상, 「배비장전」

이 작품은 지배층의 허위억식 또는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 ‘배 비장’을 휘질시키고, 망신을 주는 전 과정에서 익살과 해학이 드러나며 ‘배 비장’의 위선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지배층인 기생 ‘애랑’과 하인 ‘방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를 읽어 낼 수 있다.

3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작품에서 배 비장은 방자와의 내기 때문에 도입 첫날 기생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으며, 산속에서 애랑을 보고 애랑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그 속내를 속이고 피병을 부리고 있다. 이런 배 비장의 행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37.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①

신관 사또는 음증 기생들에게 배 비장을 휘질하라는 분부를 내렸고, 기생 가운데 애랑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신관 사또에게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갈 것을 제안한다. 즉 신관 사또가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하러 간 이유는 배 비장을 휘질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수고한 여러 비장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 ② 배 비장이 구관 정 비장과 애랑이 작별하는 모습을 보고 “저 건너 선창 위에 ~ 저 일이 웬일인고?”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여러 비장들이 방자에게 한 ‘방자야, 네 예방 나리께 ~ 여쭈어라.’라는 말과 ‘방자 분부 듣고 배 비

장에게 전갈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배 비장은 가장 청고한 ~ 지어 읊는 것이었다.' 장면을 볼 때, 배 비장은 한라산 산행을 했을 때 혼자 바위에 앉아 '여러 비장'들이 춘흥을 즐기는 것을 비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여러 비장들이 방자에게 배 비장에게 전갈하라는 말 가운데 "여러 날 여행에 ~ 고향 생각 너무 마옵시고"라는 내용을 볼 때, 여러 비장들은 도입 첫 날 배 비장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방자'와의 내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②

방자와 배 비장의 내기는 신관 사또가 읍중 기생들과 배 비장을 휘젓시키기 위한 모의를 하는 시간보다 선행된 사건으로 휘젓 모의에서 나온 책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배 비장이 휘젓할 것이라는 방자의 확신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① 배 비장이 '천기에게 대혹'된 정 비장을 비판하며, '절대가인'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배 비장 자신이 여인에게 현혹되지 않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금욕적 지조를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생을 멀리하겠다는 배 비장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을 휘젓'시키기 위해 '읍중 기생을 다' 불러들여 '중상'을 제안하는 신관 사또는 휘젓 모의를 발의하는 휘젓 모의자로 볼 수 있다.

④ 신관 사또의 명을 듣고 배 비장을 휘젓시키겠다고 자청한 후에 산속에서 혼자 '춘광을 희롱'하며 의도적으로 배 비장의 눈에 띄는 애랑은 배 비장의 휘젓을 위해 실질적인 책략을 실행하는 휘젓 담당자로 볼 수 있다.

⑤ 배 비장의 '배 앓는' 모습을 보고, 애랑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피병'을 부리는 것임을 눈치 채고 배 비장의 의도를 모르는 척하며 배 비장을 홀로 남겨 두고 떠나는 여러 비장들은 휘젓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9~42] (인문)

「한비의 세치(勢治)」

이 글은 임금의 세(勢)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법(法)과 술(術)을 강조했던 한비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한비는 신하들을 잘 통제하여 임금이 권력을 강화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법(法)에 해당하는 상벌의 권한을 임금이 독점해야 할 것과 이를 행할 때에는 술(術)의 '형명참동'에 따라야 함을 언급했다. 또 무위의 정치를 하여 임금이 자신의 속마음을 신하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야 함을 말하였는데 이와 같이 법과 술을 병행하여 임금이 권력을 강화할 때 비로소 무불위의 통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3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①

2문단 마지막에서 임금이 세를 얻기 위해서는 상과 벌을 혼용하되 상보다는 벌을 중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언급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상을 받기 위해 미리 작은 말을 해 두고 큰 성과를 올리는 경우 해가 더 클 것임을 언급하며 따라서 신하들이 직분 이상의 일을 달성한 경우에도 벌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형명참동'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임금이 상과 벌을 내릴 때에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마땅한 명분 없이 상을 줄 경우 나라가 무질서해진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하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신하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자연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⑤ 5문단에서 임금이 상벌과 무위를 바탕으로 법과 술에 능통해야 무불위를 이루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40.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②

2문단에서 한비는 상벌을 내리는 권한은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금이 독점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이 반드시 위해를 입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제 임금'은 전상에게 상의 권한을 위임하여 전상이 임금 대신 다른 신하들에게 직위를 주고 녹봉을 배풀었음을 알 수 있고, '송 임금'은 자한에게 벌의 권한을 위임하여 자한이 임금 대신 다른 신하들에게 형벌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비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두 임금 다 위해를 입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41.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㉔의 '이런 경우'는 '신하가 주어진 직분 이상의 일을 달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자신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음식 담당 관리가 탕약을 만들어 바친 것은 약 담당 관리의 일을 대신하여 자신의 직분 이상의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보통은 이런 경우 직분 이상의 일을 한 음식 담당 관리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한비는 이런 경우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임금의 환심을 사려는 무관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직분 이상의 일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핵심 개념의 비교 이해 [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노자는 무위를 통해 백성에 의한 자율적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본문의 한비는 무위를 통해 임금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므로 한비가 무위를 통해 임금이 필요 없는 자율적 통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과 5문단을 보면 한비의 무위는 임금이 신하를 통제하고 휘어잡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노자의 무위는 임금이 세를 약화하고 백성에게 자율권을 일임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비와 노자는 '무위'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나 둘 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질서를 이루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

[43~45] (고전 시가)

정훈, 「우활가」

이 작품에서는 '우활', 즉 어리석음을 주제로 하여 자연에 묻혀 안빈을 추구하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은 7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단락마다 '우활'을 반복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구조를 보인다. 각 단의 내용은 화자와 우활, 가정생활과 우활, 자연 탐승과 우활, 천성과 우활, 우활과 한탄, 우활과 소망, 우활과 체념의 순서로 되어 있다.

4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작품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청자인 '벗님'을 밝히며 화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② 이 작품에서는 "어리고 미친 말이 ~ 아뉘던가", "동설에 시흥 계위 치움을 어이 알리",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홀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는 "우활도 우활홀샤 그레도록 우활홀샤"라는 동일한 구절을 수 차례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 작품에서는 '춘산', '하정', '추천', '동설' 등의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사시가경을 모르는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4. 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 ④

㉠은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화자는 일백 번을 죽어서라도 '태평성대'를 이뤘던 '요순'의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우활'을 잊고 싶다는 바람이 제시되고 있다.

① ㉠과 ㉡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와는 거리가 멀다.

② ㉠과 ㉡은 모두 궁핍한 처지의 화자가 각박해진 세상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을 화자의 내적 지향으로 볼 때, ㉡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다.

⑤ ㉠에는 화자가 '요순'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요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아닌 화자의 긍정적 평가가 드러나며 ㉡에는 술을 따르는 '아희'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45.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②

[B]에서는 '인간시비'조차 알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 이런 '처지'에 먼 장래인 '백년'을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시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처지'에도 '백년'을 근심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는 외적으로는 비가 새는 '초가집'을 통해 가난함을 모르는 자신의 '우활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화자의 청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는 '우활함'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아침과 낮으로 고민해 보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하늘'이 정해 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D]에서는 이상적인 세상으로서 '성현'이 '살던 세상'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성현의 한 사람인 '주공'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E]에서는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면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탄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 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